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김경태(광주은행 홍보팀장)·김미희(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 간사)·김재곤(서정치과 원장)·문병훈(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이묘숙(2006 광주비엔날레 도슨트위원)·진원장(조선대 미술대학 학장)씨 등 위원 11명 중 6명이, 본사에서는 조경완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간 지면 분석 및 비판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주었다. 특히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맞아 향후 '광주일보 이렇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보 지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최희동(본사 은펜클럽 회원·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씨는 e메일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다.

차별화·집중화만이 미래 광주일보 성장동력

■김 경 태 (광주은행 홍보팀장)

UR 이후의 관련산업 심층분석
'한-미 FTA' 대안 제시했으면

■김 미 희 (광주 YMCA 간사)

'온누리안 리포트' 시의적절
노령층 배려 지면 구성 부족

■김 재 곤 (서정치과 원장)

읽을거리 풍부·지면 구성 탄탄
모기업 홍보기사 자제했으면

■문 병 훈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

'광주=예향의 도시' 상징성 고려
문화면 적극 보강 어떤가

■이 묘 숙 (광주비엔날레 위원)

웰빙면 '99세까지 88하게'
너무 음식에만 치중 아쉬워

■진 원 장 (조선대 미술대학장)

차별화된 시리즈물 다뤄
지역신문 한계 극복해야

▲김미희=지난 3·1절 마라톤을 앞두고 게재된'우리도 뛴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 YWCA와 함께 대회에 참여하자는 제안과 요청이 많았다. 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좋았다.

또 기획 시리즈로도 실리고 있는 '온누리안 리포트'와 '하이틴 공부합시다'코너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점, 적절한 주제를 뽑아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다뤄줬으면 한다.

▲이묘숙=주말판 '웰빙'란에 게재되는 '99세까지 88하게'라는 코너는 너무 음식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노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일보에서는 이들을 배려하는 지면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지난 2월 28일자 12면에 건강체조 배우는 담양읍 삼다리 주민들의 사진 기사를 게재했는데, 사진만 쓰는 것에 그쳐서는안된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소일 거리가 신문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 아닌가. 지역 사정을 감안,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읽을 거리를 발굴해야줘야 하는 것도 언론의 할 일이다.

▲진원장=창사 55주년을 앞둔 광주일보가 앞으로 많은 기획기사를 게재해 줬으면 한다. 독자를 끌어들이고 지역 신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차별화 뿐이다. 특정일·특정란을 정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획 시리즈물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김재곤=지면이 굉장히 좋아졌다. 볼만한 볼거리가 있는 신문이 돼가는 것 같다. 예전에는 1면을 본 뒤 스포츠면으로 바로 넘어가던 독자들이 2면·3면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바람직하다. 이제 5월이다. 광주에서는 5월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민주화를 담으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함을 내세우는 지면 배치가 필요할 듯 싶다.

기획 기사의 경우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 특히 '이젠 실리다'라는 기획기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아이템을 접목시키면 죽어가는 농촌이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을 찾아 게재하는 것도 독자들이 '실리'를 챙기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김경태=한·미 FTA가 타결됐다. 이번 타결로 무슨 분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 분석하는 기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던 관련 산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유망 업종은 무엇이고 그 분야는 과연 수혜를 봤는지 등을 살펴보고 알려줬으면 한다.

▲문병훈=최근 광주일보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내용도 차별화 되고 있어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기획기사가 많이 늘었다. 올해의 경우 '온누리안 리포트', '그사람 지금은','이젠 실리다','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 농업', '국립공원 40년','하이틴 공부합시다',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등으로 상당히 많아졌다. 시의 적절한 것도, 질적으로도 괜찮았다.

▲진원장=4월 10일자 1면에 'Welcome to Yeosu'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계절을 고려해 검정색 활자보다 산뜻한 색깔의 활자를 썼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다. 시각적으로 어떤가.

▲김미희=경제면의 경우 연합뉴스의 기사가 80% 이상 되는 것 같다. 중앙 지역 뉴스라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노령화 인구를 감안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정보가 없는 독자들은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데 언론이 해주면 독자들에게는 훨씬 고급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좋은 반응을 얻지 않겠나.

▲이묘숙=지난 3일자 15면 '긴급진단-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명작 없는데 누가 찾겠나'라는 기사는 '선진 미술관서 배운다'와 관련지어져 좋은 것 같다. 또 지난 9일자 '박진현의 문화카페-천경자가 고흥을 떠난 까닭은'이라는 기사는 너무 아까웠다. 경기도에 고흥이 고향인 천경자 미술관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아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이유를 알았다.

워낙 천경자 작품이 미술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크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김재곤=광주일보 모기업이 대주그룹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 면에서 기자 이름 빌어서 광고성 기사를 쓰면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차라리 10일자 1면 광고처럼 광고를 내라. 물론 사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은 그렇지 않다. 기자 이름이라도 빼고 넣어라. 속 보이는 짓 해서야 되겠는가.

▲김경태=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젊은 독자들을 위해 클래식 음악과 그에 관련된 뒷얘기를 풀어쓴다거나 '스포츠 알고 보면 재미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다뤄줬으면 한다. 광주일보 지면이 24면 아닌가. 다른 지방지보다 4면이 많은데 이 4면을 차별화시키고 집중화 시켜야 한다. 광주 소식을 알려면 광주일보를 보도록 하는 4면을 만들어야 한다.

▲문병훈=지난 6일자 사설 '일부 공무원의 근무행태 너무 지나치다'는 제목은 얼마나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다. 불성실하다, 문제 있다는 쪽으로 나갔어야 할 것 같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시민 단체가 지역 행정기관 등 파워 집단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한다.

▲김재곤=광주시 치과의사회에서 최근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야제나 식후 뒷풀이 행사를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재즈 연주를 할 것인가, 대중 가요 가수를 부를 것인지, 클래식 공연을 열 것인지에 대해서다. 결국 재즈를 택했는데 다양한 문화를 언론이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문병훈=창사 55주년인데 최근 문화 중심 도시라는 이슈가 있는데다 예향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문화에 강한 신문','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신문'으로 표방하고 적극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명인 문화부 기자들의 인력 보강이 절대적이다.

▲최희동=경제면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게 진부한 내용의 기사로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경영에 관련된 지식들이 넘치는 시대다. 지역 경제인들이 읽고 도움이 되는 경제면 제작에 치중했으면 한다.

지역 행정 기관이 추진했어야 할 사업 중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업들에 대해 취재, 기사화해주는 것도 좋겠다. 단체장의 생각과 능력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낙후시키는지 검증해 주는 것이다. 지역민들에게는 좋은 일꾼을 뽑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폐기물처리장 유치 문제, 태백 자동차 경주장 운영 상태 등을 살펴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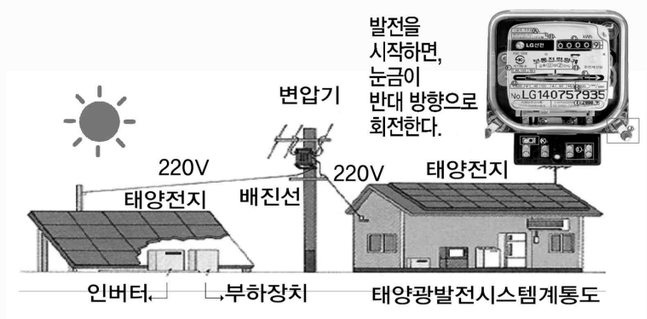
/정리=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한 독자위원들이 '광주일보,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온누리안·하이틴·이젠 실리다…기획 시리즈물 돋보여
지자체 사업 '허와 실' 파헤쳐 단체장 검증 도움됐으면

주택 전기무료사용/전기료 누진세 해방/월 전기요금 4만원 이상 납부 주택소유자들에게 희소식!!

태양광 주택설비 소요자금
정부에서 60%
무상지원!!



태양광 설치시 전기료 무료로… 냉난방기 걱정 끝~~

태양광 주택 설비
무상지원금 신청접수

태양광 신규 보급 국가지원정책사업
무요금,무공해,무한정,무소음,무제어

❶ 정부 지원 태양광 주택 선청접수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무한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율 확대(선진국수준인 5%이상)를 위해 2007년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❷ 태양광 자가 발전시스템 무료 전기 사용
태양광 발전기란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설치하여 필요에 맞게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발전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여 1kw당 716.4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❸ 정부무상 지원금 60% 전국시범주택 대상모집
정부무상보조금 60%, 전국적인 태양광 시범주택을 모집합니다

- 날짜 : 2007년 3월5일부터~(2007년 태양광발전 주택 정부지원예산내 운영으로 조기마감 예정)
- 대상 :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공건물, 교회 … 1년미만 신규주택 우선 순위
- 선정 : 에너지관리공단 심사

●정부 무상보조 태양광주택 사업부● 태양광 주택설치 전문기업

접수 및 상담문의
062)251-1682

서두르십시오![병원·학원 최적지!]
특급입지!! 대단지 2,5000여 세대 아파트 독점상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빠른 상권형성, 확실한 수요층, 안정적인 수익성
이젠 당신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고객과 성공사업의 기쁨만 생각하십시오.

※상기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앞
동림동 다아빌딩 상가 임대!

떠오르는 신개발지구의 중심!
최고의 고객층이 형성된 황금입지를 잡았다!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진출입에 위치한 최대상권!
- 동림주공, 삼익, 삼라 등 반경 1Km 이내에 10,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밀집

분양문의 062)531-3500 다아주택㈜